

광주교육청,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한다

협의회 열고 종합대책 논의... 교권침해 초기단계부터 즉각 지원 학부모 무고죄 고발 방안 등 생활지도권 보장 법령 개정 촉구키로

광주교육청은 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교원단체와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 서부터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지원단은 교육감이 단장을 맡고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또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에 대해선 무고죄 고발을 하는 방안이나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도 촉구하기로 했다.

교사와 면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하도록 하고, 불시 방문과 상담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나 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혼자 민원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비 선지급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 및 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치유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종근 광주교육청 교육국장은 "협의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령 정비 과정을 반영하여 가능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수시모집 대비 28일~9월 14일 집중 상담 대입지원관·상담교사 참여

전남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끝나는 9월 14일까지 3주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곳의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집중 상담 기간에 고3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 및 성적 등을 활용한 수시모집 맞춤형 지원전략을 상담해 줄 예정이다.

이번 집중 상담에는 대학에서 학생 선발 경험을 가진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지원관과 학교에서 다년간 진학지도 경험을 가진 상담협력교사 및 파견교사가 참여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3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학부모는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포털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로진학상담센터는 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김은섭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기간 운영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자기주도적 진학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전남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학생들이 독일 함부르크 슈타일스후프 청소년의집에서 열린 환영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생 16명, 특별한 독일 방문 눈길 獨 '청소년의 집' 초청 교류... '이민자 통합' 아이디어 수집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독일 방문이 눈길을 끈다.

독일 한 도시에 위치한 '청소년의 집'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이민자 통합'이라는 주제가 숨어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7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조선대 학생 16명이 공진성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최근 독일 함부르크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은 함부르크 청년들의 초청으로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해 9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 17명이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반츠벡(Wandsbek) 구의 '슈타일스후프 청소년의 집(Haus Der Jugend Steilshoop)'에서 국제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장한 청년이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동안 국제교류 활동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함부르크 시와 반츠벡 구가 이들의 교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광주에 살고 있는 함부르크 출신 언론인 안톤 솔츠씨를 통해 조선대 학생들이 파트너가 됐다.

함부르크 청년들은 11일 간 광주 동구의 게

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조선대 학생들과 다양한 체험을 했고, 광주에서 환대를 받으며 또래 청소년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독일로 돌아간 함부르크 청년들은 조선대 학생들을 초대했다.

독일어를 전공하는 학생부터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 교류팀은 독일 청소년과의 교류 외에 또 다른 과제를 스스로 부여했다. 이민자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이다.

마침 초청하는 독일 청년 중 다수가 이민 경험을 갖고 있어 이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민자 통합에 관한 구체적 경험과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대 학생들의 프로젝트 주제를 전해 들은 독일 측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고 중요한 인물을 만날 수 있도록 추천해주었다.

이들 방문단은 일정을 소화하며 틈틈이 독일 곳곳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의 모습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수집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학점 인정 교육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상호학점 인정 교육을 통해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취업 활동에 힘을 보탤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맞춤형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과 협력하는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는 최근 교내 융복합쿠링클래스에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공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업고, 금파공업고, 동일미래과학고, 송의과학고 등 6개 학교 취업동아리 학생 총 50명이 참여해 오명진 교수의 '이태리 요리실습'과 이봉선 교수의 '일식조리실습-일식초밥&일식냄비' 강의 들었다.

이번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특급호텔 실무 경험이 있는 동강대 교수진들의 실력을 전수받아 최신 트렌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향후 동강대 외식조리제빵과에 진학할 경우 이번 이수 과정의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또 광주전자공고 3학년 학생 9명은 본관 2층 에너지변환실습실에서 '태양광발전실습 및 스마트 그리드의 이해' 수업을 들었다.

AI융합전기과 정병의 교수의 지도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태양광발전 이론과 관련 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실습 등을 배웠다.

전자공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좀 더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최대 8학점까지 인정받는 상호 학점제도도 매력적이다"며 한 목소리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신대 '스마트관광 전문가 양성 블록체인 전문 과정' 운영

동신대학교 전남형글로벌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단장 류갑상 교수)은 8월 한 달 동안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한 '블록체인 전문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내 최고 전문 강사에게 160시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 고급 개념, 응용 프로그램 활용 등을 집중 교육 받는다.

류갑상 사업단장은 "블록체인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의 신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스마트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등 수상작 27점 선정

전남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전남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남교육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더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지난달 17~24일까지 노래·웹툰·포어 캘리그래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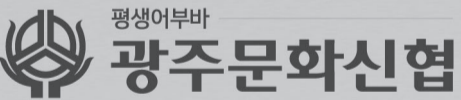
공모기간에 노래 8점과 웹툰 9점, 포어 캘리그래피 등 46점이 접수됐다.

홍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26점(최우수상 6점, 우수상 10점, 장려상 1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들을 누리집에 탑재해 각급 기관의 청렴 교육,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송출, 우수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청렴 인식개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재술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수준 높고 참신한 작품이 다수 응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청렴 콘텐츠 공모를 통해 교육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